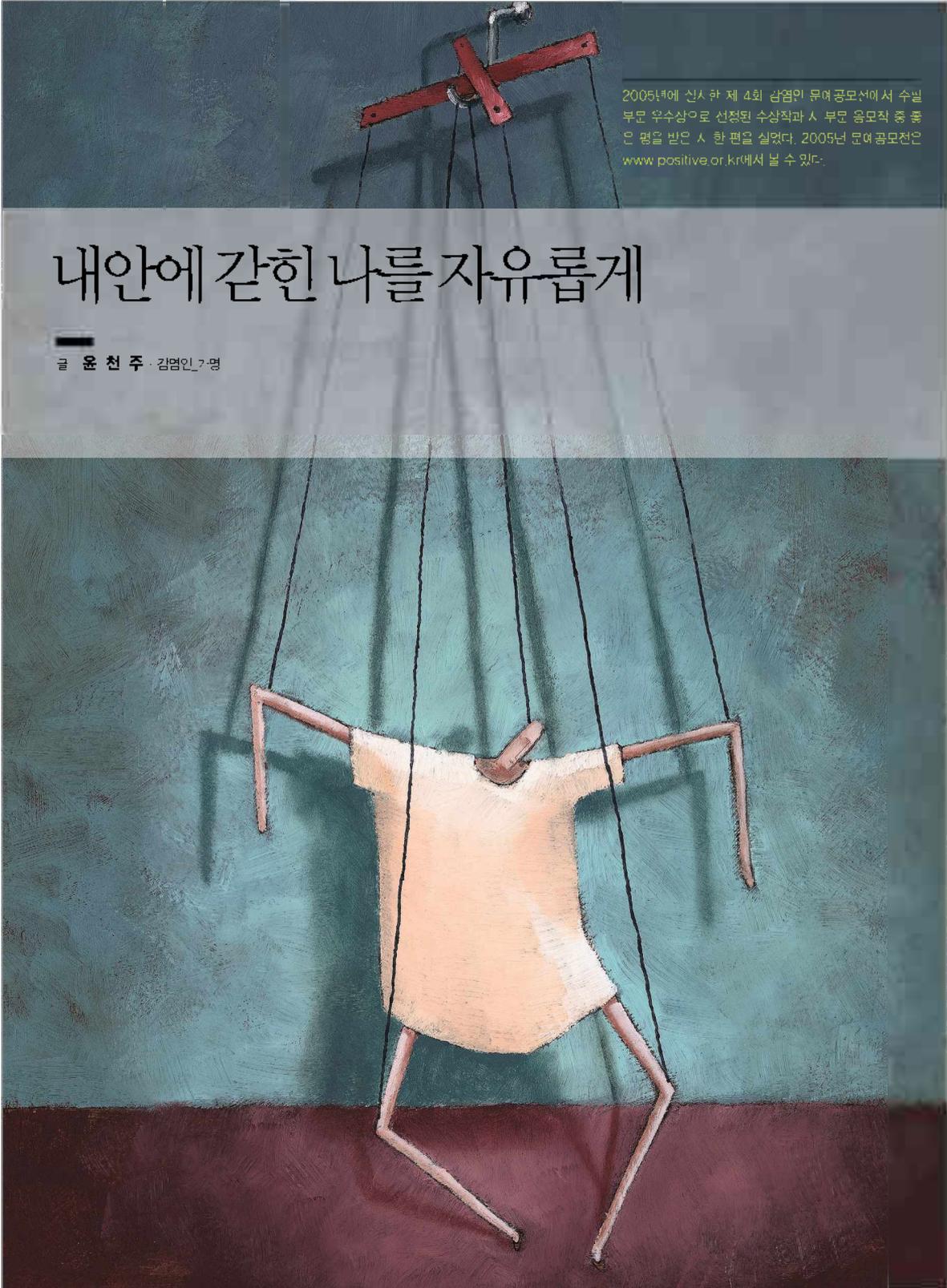


2005년에 신사한 제4회 감염인 문예공모전에서 수필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수상작과 시 부문 음모작 중 좋은 평을 받은 시 한 편을 실었다. 2005년 문예공모전은 [www.positive.or.kr](http://www.positive.or.kr)에서 볼 수 있다.

# 내안에 갇힌 나를 자유롭게

글 윤천주 · 감염인 7명



**한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자포자기가 무엇임을 온몸으로 표현하듯 삶에 빛을 잃어가던 그 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놓아버린 그 순간이 실은 비련이요 허상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고 있다.

빛바랜 사진첩마냥 추억을 집어든 앨범을 꺼내듯듯 아릿한 마음으로 되새기기에는 너무도 어둡고 아픈 기억의 저 너머를 다시 그려보려 한다.

2002년 12월.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 만든 죄인이 되었다. 죄인 이전에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조사마저 정식절차를 거치지 못하며 검사 앞에 서기 위해선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어야 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김사와의 대면에서도 단 5분여 만에 모든 조사가 마무리 났고, 난 그렇게 단 한 번의 검찰조사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구치소로 수감되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기다리는 내내 나는 살인자라는 죄명보다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꼬리표가 더 큰 죄인 것마냥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루하루 생의 에너지가 방전되듯 모든 것에 무감각해질 즈음 연히 들여다 본 거울 속 내 모습에 한없이 눈물이 났다. 구치소에서의 나의 생활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방문 앞에는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팻말이 붙고 두 손뼉에는 수감이 채워진 채 한겨울에도 임주일에 한번 작은 문통에 담겨져 오는 온수로 목욕을 해야 했으며 스물네 시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며 보내야 했던 그 시간이, 깨어서도 꿈을 꾸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티끌만큼의 희망도 삶의 의지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내게 위안을 주려하지 않았고, 눈길을 주려하지 않았으니까. 하루하루 죽음보다 더한 이 시간이 너무나 싫었다. 하지만 그런 내게 죽음의 선택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며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생지옥과 같은 현실이 곧 죄값이었고 천형과 같은 내 병에 굴레인 것이었다.

그렇게 수개월을 보내는 동안 난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금 또 다

른 교도소로 옮겨졌다. 처음부터 다시금 겪어야 하는 고통과 한겨울, 매일 밤 나는 기도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죄인에게 주어질 죄값보다 에이즈라는 꼬리표가 나를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으로 내몬 현실이 저주스러웠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지옥과 같은 어둔 터널을 걸으며 차츰 나는 말버둥지기 시작했다. 난 하루를 살다 죽을지인정 내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되찾고 싶은 오기와 약이 생기게 되었다.

남들 눈이 부서워 구치소에서의 하루 30분 운동마저 거부한 채 한평 남짓한 방 안에서 스물네 시간을 보내며, 매일 밤 악몽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루하루 현실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그렇게 구속 수감이 된 후 5개월여 만에 나는 처음으로 땅을 밟아볼 수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현실에 익숙해져갔다. 그렇게 많은 시간 눈물이 흐르고 마르기를 반복하는 동안 나는 조금씩 현실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내게 호의적이지 못했고, 그뻘 현실에 나는 고개 숙이며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난 3년형을 감형 받았고 또 다른 시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개, 소, 돼지반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

나게 되었다. 그 어떤 병에 대한 치료나 시식도 얻지 못한 채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죽는다는 것을 사신택처럼 받아들이며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한 짐이 될지언정 그냥 쓰러질 수는 없다는 오기를 갖게 된 것도 그 친구들을 만나 이후 갖게 된 마음이다.

이미 위험한 정도로 나빠진 변역수치에도 치료는 커녕 병원 진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당연한 것인 마냥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 그때부터 나는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내안에 수치심을 뒤로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낱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 차가운 냉대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으니...

그 무렵 일 년여가 넘도록 면역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그 어떤 치료책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동안 내 몸은 점점 약해져갔고, 우여곡절 끝에 받게 된 면역검사결과 CD4 수치가 200 이하로 저하되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시선 측에서는 자비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나는 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트리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이런 내 처지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난 뒤에서야 시선 측에서는 최소한의 치료를 약속했다.

나는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온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선유에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이제 나는 12년의 형기 중 3년여를 보냈다. 여러 번의 시선을 옮기며 2004년 11월에야 지금 이곳에 정착하여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매번 쫓겨야 하는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 항상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지금 이곳에서의 시작 또한 이미 이곳으로 옮겨 오기 전부터 이곳에서는 에이즈 감염인 누가 온다는 소문이 퍼져있었



고, 나는 이곳에 발을 들인과 동시에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에 주눅이 들고 불안했다.

이미 부당하게 공개된 나의 신상정보로 인해 나는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했다. 12년이란 시간을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나에게 이곳은 이제 집과도 같은 곳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에 적응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하지만 무기력하게 부당한 처우에 굴복하고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수치심으로 나 스스로를 가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 당당해지기로 했다. 어차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숨을 곳조차 없는 공간에 발가벗겨진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내 허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니 누구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니까. (다음호 계속)